

현대패션에 나타난 남성스커트에 관한 연구

-남성스커트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영민* · 이연희 · 이윤미

한양대학교 한국생활과학연구소* ·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 한양여자대학

1. 서론

과거 산업화 이후 남성중심의 사회에서는 남성들에게 남성다움과 강인한 가부장적 모습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의복을 통해 보수적이고 엄격한 태도와 함께 강건한 외형의 스타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화 정보화와 함께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 환경 요인은 이러한 사회구조와 남성 패션에도 커다란 변화를 주었으며, 과거 고대부터 산업화 전까지도 그들이 입었던 스커트에 대한 착용을 열망하는 남성들이 등장하고 있다. 2004년 초에 뉴욕에서 하이힐에 길고 짧은 스커트 차림의 남성들이 도심을 누비는 행진을 했다. 변태성욕자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이 남성들은 여성들은 남성의복을 입고 다니는데 왜 남성은 여성의복을 입지 못하느냐는 불평등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였으며,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60년대의 유니섹스 룩이 유행을 이루었던 이래 1970년대의 앤드로지너스룩, 캔더리스룩 등, 여성과 남성이 서로 이성의 패션을 공유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유행의 변화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을 원하는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 여성들에게는 다양한 남성 패션을 즐길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남성들은 여성의 모든 의복을 즐기지는 못하였다. 남성의 스커트가 그 큰 예라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과거 남성들이 스커트를 입었던 시기의 시대적 상황과 스커트가 등장한 이후부터 현대까지 남성 스커트의 역사를 고찰하고, 그 역사 속에 스커트가 가졌던 성의 역할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1960년대 이후부터 현대까지 남성복의 자유를 표현하고자 했던 패션디자이너들에 의해 등장한 남성 스커트의 디자인 사례와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1. 남성스커트의 역사

서양의 복식사에서 스커트는 동물의 피부나 기타 다른 재료를 허리나 엉덩이 주위에 감아 싸는 형태로 입은 가장 오래된 의복의 형태 중에 하나였으며 고대 이집트에서는 남성들이 복잡한 형태로 드레이퍼리한 다양한 스커트를 입었다. 복식의 구성면에 있어서는 시대와 문화

권에 따라 차이를 보여지나, 스커트처럼 튜닉(tunic)이나 키톤(chiton)이라고 불리는 타입도 고대 그리스 남성들의 필수적인 의복중의 하나였다. 노출된 가슴과 고전적인 드레이퍼리는 조화는 오랜 역사에 걸쳐 유행했던 남성의 권위적인 상징적 이미지였다.

로마 남성의 기본 옷은 튜닉이었으며 가장 중요한 옷은 토가(toga)였다. 이 옷은 로마의 법, 종교적 권위, 가족 가치관을 반영하는 의복의 상징이었으며, 처음에는 남녀 모두 입었으나 BC2세기쯤에는 성인 남성들만 입었다. 토가는 로마의 시민성과 남성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 디자이너에게 많은 영감을 주어왔다.

중세시대의 비잔틴 문화부터 중기의 시대까지도 남성들은 여성들과 같이 스커트 형태의 의복을 착용했다. 그러나 1320년대 말에 재단법이 등장하여 옷감을 사람의 몸에 맞추어 입기 시작했고 오늘날 우리가 패션이라고 부르는 의복이 탄생하게 되었다. 패션 감각이 있는 남성들은 긴 코트를 벗고 몸에 꼭 맞는 짧은 튜닉을 입고 자랑스럽게 다리를 내놓고 다녔다. 로마 군인들처럼 남성들은 다리를 드러내서 자신의 육체적, 성적 힘을 보이고 싶어했다.

15세기 후반 이래로 가운데나 덧옷이 없이도 꼭 맞는 듀블렛(doublet)이나 푸르프앵(pourpoint)을 입기 시작했다. 푸르프앵은 고딕시대부터 애용되어 오다가 16세기에 와서 가장 큰 빛을 보았다. 영국의 헨리 8세가 푸르프앵을 입었던 모습은 남성적인 다리와 그의 정력과 힘을 표현하는 남성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세시대의 종교복식에서도 남성들은 모두 스커트를 착용했다.

17세기 바로크 시대에 와서 푸르프앵의 간소화된 모습인 베스트(veste)와 듀블렛 대신에 웨이스트코트(waistcoat)를 입었으며 남자들 신사복 바지의 모체인 단정한 무릎길이의 트루스(trousse)가 등장하였다. 17세기 후반 당시의 패션 리더였던 루이 14세의 모습은 매우 화려했지만, 영국의 청교도들은 검소하게 의복을 착용하였다.

프랑스 혁명이 이후 남성들은 스커트 형태의 의복에서 브리치(breeche)형태의 바지와 판탈롱을 착용하였으며, 플러 코트와 함께 현대 남성정장의 모습을 갖추었다. 19세기에 플러 코트(frock coat)는 영국 남성의 남성성과 제국의 상징 중의 하나가 되었다. 플러 코트는 18세기보다 더 단순해지고 구조가 덜 복잡해졌는데 여성 실루엣을 흉내낸 full-skirted coat로 발전하게 되었다.

2. 남성들의 스커트착용을 위한 활동

1930년대 영국에서 활동한 Mens Dress Reform Party(MDRP)는 남성들의 건강과 그들의 옷을 향상시키려는 의도에서 모였다. 킬트(kilt)는 이 MDRP의 의도에 가장 부합되는 옷이었고 입는 사람들에게 참다운 공기목욕을 시켜줄 수 있는 의복이었다. 1927년 이미 New Health 월간지는 영국 소년들은 가장 위생적이고 건강한 옷인 킬트를 입어야 한다고 하였다. MDRP를 지지하는 예술가 Eric Gill은 남성을 위한 스커트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1931년 그가 쓴 수필에서 남성과 여성의 옷의 차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남성과 여성이 똑같은 옷을 입으라는 것은 아니었다. 그 이유는 여성과 남성이 일반적인 구조는 흡사하나 다르기 때문이며, 다만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유롭게 스커트를 입는다는 개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으로, 바지가 특별히 남성을 위한 옷이라든가 스커트가 여성을 위한 옷이라는 고정된 개념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1990년대 후반 MDRP의 개혁된 의지를 전수 받아 남성 스커트의 사회적, 의학적 이점을 촉진하는 다양하고 특징 있는 그룹들이 결성되었다. Fashion Freedom The International Mens

Fashion Freedom Network와 같이 대부분의 그룹은 인터넷을 통해 결성되었다. 그중 Bravehearts Against Trouser Tyranny(BATT)는 흥미로운 사이트로 대표된다. BATT는 건강, 편안함,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고 스커트가 바지보다 남성의 신체구조에 더 적합하며 근육질로 정형화된 틀에 박힌 남성의 이미지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성은 어떤 옷을 입든 선택할 수 있으나 남성은 그렇지 못한 불평등을 개혁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인터넷이 온라인을 통해 스커트와 non-bifurcated종류의 의복을 생산하는 산업과 유통 경로도 만들어 내었다.

영국 회사인 MIDAS(Men in Dresses and Skirts)는 앞 지퍼가 달린 진 스타일의 스커트를 포함하여 아주 다양한 스타일의 스커트를 제안하고 있다. MIDAS는 남성을 위한 스커트는 패션 스타일에 민감한 남성들의 육체적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켜야만 한다고 하였다. MIDAS는 주로 부풀 길이의 스커트를 만들었으며, 독일의 Menintime은 발목 길이나 바다까지 닿는 길이의 특징 있는 스커트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남성 스커트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3. 결 론

스커트의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과거 오랜 기간동안 남성들은 여성과 같이 스커트를 공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스커트가 생겨난 후부터 전체 역사 속에 남성들이 입었던 스커트의 스타일과 형태를 살펴보고 동시에 현대의 디자이너들이 역사 속의 스커트를 현대 디자인에 접목시킨 사례를 찾아 남성스커트에 나타난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유니섹스 모드의 선구자인 Rudi Gernreich, 여성적인 유니섹스 모드를 주창한 Jacque Esterel, 다양한 남성 스커트를 시도하여 전통적인 남성상에 도전한 Walter van Beirendonck는 성의 구별 없이 그의 작품제작을 위해 노력하였다. Jean Paul Gaultier는 고대 그리스시대의 남성 스커트와 현대적인 모드의 남성스커트를 발표하여 남성의 에로티카면서 남성다운 모습을 표현하였다. John Galliano 역시 로마 사제들의 복장을 형상화한 남성 스커트와 남성다운 모습의 에로티즘을 보여주는 남성스커트를 발표하였으며, Alexander McQueen, Vivienne Westwood 등의 디자이너들도 남성 스커트를 위한 디자인을 발표하였다. 스커트는 아름답고, 멋있고, 우아함을 표현하기 위해 착용하였으며, 남성들 또한 그들의 남성다운 개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스커트를 입기 원하고 있다. 남성스커트를 제안하는 디자이너들도 단기적인 유행으로 잠시 발표되는 것이 아닌, 미래에는 남성들에게 있어 스커트가 구체적 형태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그들의 디자인을 발표하고 있다.

둘째, 역사 속에 남성들이 스커트를 통해 남성복을 개혁하려고 시도한 몇 개의 큰 개혁 활동들을 고찰하였으며, 그 개혁운동의 정신은 건강, 편안함,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고 스커트가 바지보다 남성의 신체구조에 더 적합하며 근육질로 정형화된 틀에 박힌 남성의 이미지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남성이 스커트를 입고 포즈를 취하는 것은 전통적 관념에 도전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Dries Van Noten은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것처럼 남성의 스커트와 여성의 스커트 또한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스커트가 남성과 여성의 경계를 벗어나 개성을 표현하는 강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김경옥, 금기숙 (1998).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에 관한 연구." 복식 36권.

- 김소영, 양숙희 (2000). "세기말 남성패션에 나타난 표상성." *복식문화연구* 8권 2호.
- 김운경, 이경희 (2002). "20세기 남성패션에 나타난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복식* 52권 4호.
- 박미령 (2003). "현대 패션에 표현된 젠더(Gender)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5권 4호.
- 백영자, 유효순 (1998). "서양의 복식문화." 경춘사.
- 윤난지 (1998). "시각적 신체기호의 젠더구조 : 윌렘 드 쿠닝과 서세옥의 그림." *미술사학* 12권.
- 이민선 (2001). "남성 패션에 표현된 다중문화." *한국복식학회지* 51권 7호.
- 이민선 (2001). "남성의 몸과 패션에 표현된 미적 이미지(I)." *한국복식학회지* 51권 1호.
- 이정옥, 신혜원, 김화라, 하오선 (2003). "남성동성애자의 성 역할에 따른 의복태도 및 선호." *한국의류학회지* 27권 6호.
- 정세희, 양숙희 "1930-1990년대 영화의상에 나타난 젠더 정체성(I)." *대한가정학회지* 40권 5호.
- 정홍숙 (2002).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 채금석 (1999). "현대패션에 나타난 양성적 복식에 관한 연구." *복식* 44권.
- Andrew Bolton (2002). "Bravehearts-Men in skirts." V&A Publications/Abrams.
- Gerda Buxbaum (1999). *Icons of Fashion the 20th century*. Prestel.